

#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친구와 다룬 아이가 시무룩하게 있다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이를 잘 달래주고 다음부터는 친구와 잘 지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때는 "Get along with your friend!"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 어날 것이다.

1. 너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해라!  
Contribute your talents to society!

2. 가서 강아지를 구조해 주어라!  
Go rescue the dog!

3. 네 친구랑 잘 지내라!  
Get along with your friend!

4.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있어라!  
Get away from your daily life!

5. 우리 가게에서 나가라!  
Get out of my store!

6. 칼을 내려 놔라!  
Put down your knife!

7. 차를 저기에 세워라!  
Pull your car over there!

8. 공란을 채워라!  
Fill in the blanks!

9.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만들지 마!  
Keep yourself out of trouble!

10. 내일까지 그 서류를 제출해라!  
Submit / hand in / the paper by tomorrow!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 CKS "메이저리그 새 규칙 도입해야"

코로나19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미뤄지면서 올해는 새로운 방식의 경기진행을 시도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CBS스포츠는 전날 "올해 메이저리그에 지명타자 확대를 포함한 10개의 새로운 규칙을 실험해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은 5가지다.

첫 번째는 '지명타자제 확대'다. 기사는 "메이저리그 수준에서 투구 또는 타격 한 가지 일만 잘하기도 충분히 어렵다."며 "투수들의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명타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의 내셔널 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쓰고 있지 않아 투수가 타격도 한다.

두 번째는 '스트라이크·볼 판정 자동화'다. 이는 로봇 심판이 투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이른바 '자동 볼-스트라이크 시스템' (automated ball-strike system·ABS)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포수, 타자, 심판이 모이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사용은 불가피

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무승부'다. 메이저리그에는 무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승부가 날 때까지 연장전이 무제한으로 이어진다. 기사는 "긴 경기 시간은 선수들의 부상을 불러올 수 있고,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도 키운다."며 "불필요하게 긴 경기를 피하기 위해 무승부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승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네 번째는 '머시 룰' 도입이다. 한국에서의 '콜드게임'으로 이해하면 쉽다. 점수 차에 따라 경기의 승패를 경기 도중 정하는 것이다. 매체는 "머시 룰은 단축된 시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에서 선수 소모를 줄이고, 코로나19 노출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다섯 번째는 '7이닝 더블헤더 경기'다. 기사는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경기하는 횟수는 극대화 될 것이다."며 "경기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코로나19 노출 위험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마이너리그와 미국 대학야구에서는 더블헤더 경기에서 9이닝이 아닌 7이닝만 진행하기도 한다.

# 한국 프로스포츠 중계권 인기

한국 프로스포츠 중계권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프로야구와 프로 축구 경기 재개에 나선 까닭이다.

지난 27일 'jtb'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프로스포츠 중계권을 판매하는 스포츠레이더는 지난해 말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중계권을 독점 계약한 뒤, 최근 K리그 중계권을 중국과 홍콩 등 동아시아와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국가 등 10개 나라에 팔았다. 또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영국의 축구 전문 온라인 콘텐츠 회사 3곳은 K리그 영상 사용권을 사들였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 탄탄한 자국 리그를 갖춘 나라 방송사와 온라인 콘텐츠 회사들도 중계권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권 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발전된 축구리그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먼저 중계권 관련 문의를 해 온 것은 처음이다. K리그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로야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한국야구위원회와 중계권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캐나다와 일본 방송사도 최근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중계권 협상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로 세계 스포츠가 멈춰 선 특수한 환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국 프로스포츠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평론가인 최동호 씨는 "단기적, 일회적인 한국 스포츠 중계권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한국 스포츠의 시장 개발이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로야구는 5월 5일부터, 프로축구는 5월 8일부터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다.

'내수용'에 머물렀던 한국 프로스포츠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 중계되는 글로벌 콘텐츠로 성장할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감사대행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